

최근 북한 경제 현황과 특징

이 해 정 /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들어가며

북한 경제는 1990년부터 1998년까지 9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다가, 북한 경제는 1999년도 이후부터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멈추고 플러스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2006년과 2007년 다시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여 1999년 이후의 회복세가 본격적인 산업 생산력의 회복이 아니었음을 보여주었다. 북한 경제가 다시 마이너스 성장으로 반전된 것은 북한 경제의 플러스 성장세가 안정적인 선순환 구조가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북한 내부에는 성장을 위한 투입 변수가 거의 고갈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 성장은 외부로부터의 지원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여 자체적 내부 역량 마련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2010년 북한 경제와 남북 경협 여건에 대해 전망하고자 한다. 특히,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은 물론 남북 경협까지도 북핵 협상의 진전 여부와 깊이 관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북핵 문제의 해결은 북한 경제 논의의 전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 경제 현황

2008년 북한 경제는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대비 3.7% 성장하여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나 플러스 성장을 보인 것이다.¹⁾ 2008년의 플러스 성장 기록은 일기 호조로 인한 곡물 생산 증가 및 6자회담에 따른 주변국의 중유 제공 효과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농림어업은 전년 대비 8.2% 증가를 기록하였으며, 광공업 역시 2.5% 증가를 기록하였다.

2008년 북한의 대외 무역 규모는 38억 1,600만 달러로 전년대비 29.7%가 증가하는 등 199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북한의 대외 무역 규모는 2004년 이후는 30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하였으나, 2008년 북중 교역의 급증(전년 대비 41.2% 증가)으로 38억 달러를 기록한 것이다. 2008년 북한의 총 무역액 중 중국과의 무역액은 27억 8,728만 달러로 7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와 인도가 3.2% 러시아가 각각 2.9%를 차지하고 있다.²⁾

한편, 남북 경협은 2009년 1~8월까지의 총 교역액이 9억 2,966만 달러로 전년 동기 12억 2,431만 달러에 비해 24.1% 감소하는 등 교역액이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이는 남북간 긴장 국면의 악화로 인한 것으로 특히, 개성공단 교역액의 감소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대북 지원을 포함한 비상업적 거래는 1,442만 달러로 전년 동기 8,279만 달러 대비 86.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³⁾

제한된 자료를 근거로 2009년의 성장률을 추정해보면, 2008년 보다는 다소 위축된 제로 성장률에 가까운 성장이 예상된다. 왜냐하면 2008년 크게 증가했던 농업 분야와 광공업 분야에서 저조할 전망이다. 농업 분야에서 2009년 곡물 생산량은 홍수 피해와 비료 부족 등으로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큰물 피해에 대해 보도한 바 있으며, 한국의 대북 비료 지원 중단으로 대중

1) 한국은행, 「2008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2009. 6

2) KOTRA, 「2008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09. 6

3) 통일부,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참조.

비료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3배의 수입량을 기록한 것이 이러한 예측에 근거가 된다.⁴⁾ 광공업 분야에서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로 6자회담에 따른 주변국의 증유 공급이 중지되어, 생산 원자재 부족으로 인한 제조업의 부진이 예상된다.⁵⁾ 전기가스수도업 분야에서 전력 공급률 제고가 ‘150일 전투’ 기간 동안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어, 발전소 현대화 작업의 진행으로 인해 2008년에 이은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이다.⁶⁾ 건설업 분야에서는 평양 거리 새단장 사업과 같은 대대적인 건설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150일 전투로 인한 강제적 자원 투입의 효과로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다.⁷⁾ 북한은 ‘150일 전투’로 내부 자원 총동원을 통한 경제 성장을 추진하고 있으나, 내부 자원의 고갈과 국제 경제 제재로 인한 자원 조달의 어려움으로 목적하는 성과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특징

만성적인 식량난

1994년부터 1997년의 고난의 행군 기간 이후, 10여 년에 걸친 다양한 농정시책과 국제사회와 남한의 지속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식량부족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
- 4) 북한은 “얼마 전에 내린 강한 폭우로 많은 피해를 받은 평안남도 양덕군에서는 군당위원회 지도 밑에 복구지휘부를 조직하고 대중의 정신력을 총발동해서 큰물 피해를 하루빨리 가시기 위한 투쟁”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보도(8.17 조선중앙방송), 한편 북한은 2009 양곡연도(2008.11?2009.6) 중 중국으로부터 총 62,582톤의 비료를 수입하여 전년 동기 21,105톤 대비 3배의 수입량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대북 비료 지원이 중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한국은 1999년부터 매년 30~35만 톤의 비료를 북한에 무상 지원하였으나 2008년에 지원을 전면 중단하여, 2009년에도 지원이 중단되고 있음.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 북한농업동향』 제11권 제2호, 2009. 7. p. 117 참조.
 - 5) 지난해 경공업성의 생산 성과를 선전하던 것과는 달리 별다른 보도가 나오지 않고 있음. 그러나 북한은 동원가능한 모든 내부 재원을 동원하여 성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여 성장률의 급격한 하락은 보이지 않을 전망. 2009년 신년공동사설에서 “경공업 부문 공장, 기업소들과 지방산업공장들, 가능한 모든 단위들에서 내부예비를 동원하여 인민소비품생산을 대대적으로 늘이고 상품공급사업을 개선하여 생활필수품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한 바 있음.
 - 6) 북한은 “전력공업부문의 노동계급이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로 들끓는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더 많은 전기를 보내주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였다”고 언급하면서, 5월 전력생산이 계획보다 초과 달성되었다고 밝히면서, 청천강화력발전소와 순천화력발전소, 원산청년발전소, 안변청년2호발전소 등의 생산 성과를 보도하였음(6.2 조선중앙방송)
 - 7) 특히, 북한은 2009년 예산안에서 건설 분야에 대한 투자 규모를 지난해에 비해 11% 증가한 것을 알려져, 건설 분야가 2009년 예산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로 지적.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KDI, 『북한경제리뷰』 2009년 6월호, p. 18 참조.

〈 북한의 연간 곡물 수급 현황 〉

(단위: 만 톤)

| 양곡년도 | | | 국내 수급 |
|-------|-----|-------|-------|
| | 생산량 | 최소소요량 | |
| 94/95 | 413 | 512 | -99 |
| 95/96 | 345 | 515 | -170 |
| 96/97 | 369 | 517 | -148 |
| 97/98 | 349 | 521 | -172 |
| 98/99 | 389 | 523 | -134 |
| 99/00 | 422 | 526 | -104 |
| 00/01 | 359 | 529 | -170 |
| 01/02 | 395 | 531 | -136 |
| 02/03 | 413 | 533 | -120 |
| 03/04 | 425 | 539 | -114 |
| 04/05 | 431 | 542 | -111 |
| 05/06 | 454 | 548 | -94 |
| 06/07 | 448 | 524 | -76 |
| 07/08 | 401 | 524 | -123 |
| 08/09 | 431 | 542 | -111 |
| 평균 | 403 | 528 | -125 |

자료 : 생산량(통계청), 최소소요량(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 : 국내 수급은 양곡년도(당해년도 11월 ~ 익년도 10월) 기준

1994/1995~2008/2009 양곡년도 기간 중 북한의 곡물 국내 수급은 세계식량 계획의 최소 소요량 기준⁸⁾으로 평균 125만 톤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자급률 80% 내외). 동 기간 동안의 곡물 수요는 연평균 528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나, 생산량은 연 평균 403만 톤으로 자연 재해나 비료 지원 규모 등의 상황에 따라 매년 생산량 기복이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심각한 식량 부족 상태인 북한의 식량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는 식량 수입과 외부 지원이다. 북한의 식량 수입은 주로 중국과 태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의 가장 큰 변수는 한국과 미국의 지원이며,

8) 최소소요량은 세계식량계획(WFP)의 기초대사량 수준 에너지 섭취량을 적용하여 산정. WFP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하는 1인당 1일 2,130kcal의 75%인 1,600kcal를 사용

〈 2008/09년 북한의 곡물 수급 전망 〉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세계식량계획 | 비고 |
|-------------|-----------|--------|---------------|
| 공급(만 톤) | | | |
| 생산(B) | 431 | 334 | 농진청 및 FAO 추정치 |
| 수입(C) | 20 | 50 | |
| 지원(D) | 35 | 45 | |
| 계(E=B+C+D) | 486 | 429 | |
| 최소소요량(A) | 542 | 413 | 통일부 및 WFP 추정치 |
| 부족량(A-B) | 111 | 179 | |
| 예상 부족량(A-E) | 56 | 84 | |

주 :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전망치는 통일부의 생산량 및 최소소요량 추정치를 기초로 미국이 북한에 이미 전달한 5만 여 톤과 중국과 국제사회가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원량 및 수입 예상량을 기초로 추정한 것임

2) 세계식량계획의 자료는 FAO/WFP가 2008년 12월 초 발표한 추정치에 기초함

자료 : 권태진, 「북한의 식량 상황 평가와 전망」, 『북한경제리뷰』 2009년 5월호, KDI, p. 14.

중국의 지원도 중요한 변수이다. 그러나 대북 식량 지원은 북핵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북핵 문제의 전향적 진전이 없이는 대규모 지원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한편, 2009 양곡연도 북한의 곡물 예상 부족량은 56?84만 톤으로 전망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56만 톤을 추정하였으나, 세계식량계획(WFP)는 84만 톤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자원 고갈로 인한 에너지난

자원 부족으로 인한 고질적인 에너지난은 북한 경제난의 가장 큰 원인인 동시에 북한 경제 회복의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에너지 부족 문제는 북한 산업 가동률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북한 에너지난의 주요 원인은 석탄 생산의 감소이다. 북한이 추진하는 자력갱생의 에너지 정책은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석탄과 수력에너지에 의존하도록 했기 때문에 석탄 생산량의 감소는 북한 전체적인 에너지 수급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⁹⁾ 2007년 기준으로 북한의 전체 1차 에너지 중에서 석탄과 수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85%를 초과하며, 석유는 6% 수준이고, 가스와 원자력은

〈 북한의 에너지 수급 추이 〉

| | 1985 | 1990 | 1995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
| 석탄 생산량 (만 톤/ 전년대비증 가율, %) | 3,750 - | 3,315 -5.5 | 2,370 -6.7 | 2,250 6.1 | 2,310 2.7 | 2,190 -5.2 | 2,230 1.8 | 2,280 2.2 | 2,406 5.5 | 2,468 2.6 | 2,410 -2.4 | 2,506 4.0 |
| 원유 도입 (만 배럴/ 전년대비증 가율, %) | 1,437 - | 1,847 - | 806 20.9 | 285 22.6 | 424 48.9 | 438 3.1 | 421 -3.9 | 390 -7.3 | 383 -1.7 | 384 0.2 | 383 -0.2 | 388 1.3 |
| 발전량 (억 kWh/ 전년대비증 가율, %) | 251 - | 277 -5.8 | 230 -0.4 | 194 4.3 | 202 4.1 | 190 -5.9 | 196 3.2 | 206 5.1 | 215 4.4 | 225 4.7 | 236 4.9 | 255 8.1 |

자료 : 통계청,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 2008 및 한국은행 「2008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2009. 6. 참조.

거의 사용되지 않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1차 에너지 공급은 15,594천 TOE로서 1990년 남한의 75% 수준에 불과하며, 생산과 소비 모두 한계 상황에 도달한 상태로 판단된다.

북한의 에너지 공급량은 석탄 생산량, 원유 도입량, 발전량 모두 1990년대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2008년 현재 석탄 생산량은 2,506만 톤으로 1990년에 비해 24.4% 감소하였으며, 원유 도입량은 2008년 현재 388만 배럴로 1990년에 비해 79.0%가 감소하였다. 발전량 역시 2008년 현재 255억 kWh로 1990년에 비해 7.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 적자 확대 속 대중 의존도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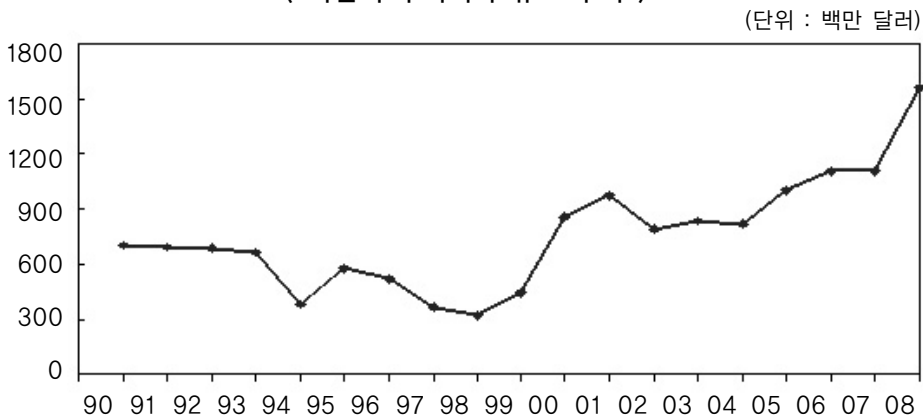
북한의 무역 적자 규모는 1998년 3억 2,400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2008년 15억 5,500만 달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체 무역 규모가 증가할수록 수출량의 증가 보다 수입량 증가가 더 커서 무역적자 규모 역시 증가하

9)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윤재영,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 과제」, 『통일경제』 2009 여름호. 현대경제연구원, p. 90 참조.

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대외 무역을 자립적 민족경제의 보완적 수단으로 인식하고 활용하고 있어, 수익성이나 비교 우위의 개념은 거의 배제되어 있다. 1999년부터 2008년까지 10년간 북한의 GDP 대비 대외무역규모는 9~15% 정도인데, 같은 기간 남한의 70%와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는 유무상통의 원칙에 근거한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민족경제건설' 을 지향하는 북한의 내수산업위주의 경제구조로 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수출보다는 수입에 의존하는 북한의 내수 산업 위주의 경제 정책이 변화하지 않는 한 만성적인 무역 적자는 해결되기 힘들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대외 무역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으로 인해 북한의 수출입 품목은 1차 산업과 저부가가치 산업 위주로 이루어져 있다.¹⁰⁾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광물성 생산품은 2004년 이후 급격한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08년에도 광물성 생산품, 비금속류 수출 비중이 전체의 58.1%를 차지하여 여전히 1차 산업 위주의 수출 구조를 보이고 있다. 수입의 경우, 강성대국 건설 노력에 의한 경공업 원부자재 수요 증대와 식량 문제 해결 노력, 광물성 연료가격 상승 등으로 섬유류, 식료품 및 광물성 생산품에 수입이 집중되고 있다.

〈 북한의 무역적자 규모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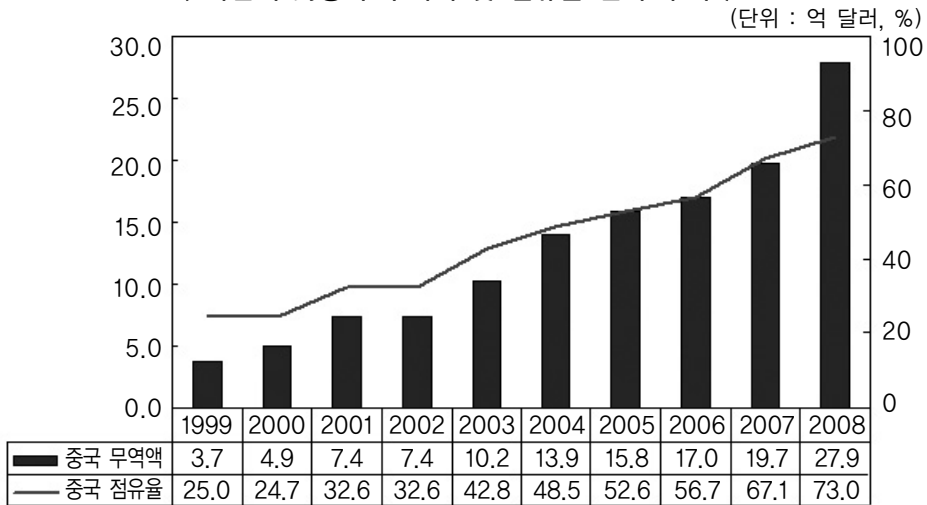


자료: KOTRA, 「2008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10)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호 참조.

한편, 중국은 1999년 이후 꾸준히 북한 무역액의 1위 자리를 지켜오며, 그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북한 무역에서 차지하는 對중국 무역 점유율은 1999년 3억 7037만 달러로 25%였으나, 급격히 증가하여 2008년에는 27억 8,728만 달러로 73%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높은 대중 의존도로 인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의 효과가 중국의 참여 여부에 의해 좌우될 정도로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극대화 되고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남한을 제외할 때, 중국을 비롯한 10대 무역 대상국¹¹⁾과의 무역액이 전체 무역규모의 90%를 차지하는 다양성의 부족으로 북한 무역은 주요 교역국의 경제 및 정치 상황에 따라 급변하는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2009년 상반기 북중 무역은 11.2억 달러(전년 동기 11.4억 달러 대비 4% 감소) 기록하였다.¹²⁾ 북한 무역에서 북중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지난 해의 무역 확대 효과를 또다시 기대하기는 힘든 것을 고려할 때, 2009년 무역액은 2005년부터 지속된 30억 달러 수준의 규모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 북한의 對중국 무역액 및 점유율 변화 추이 〉



자료: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호.

11) 중국, 싱가포르, 인도, 러시아, 브라질, 태국, 독일, 미국, 네덜란드, 홍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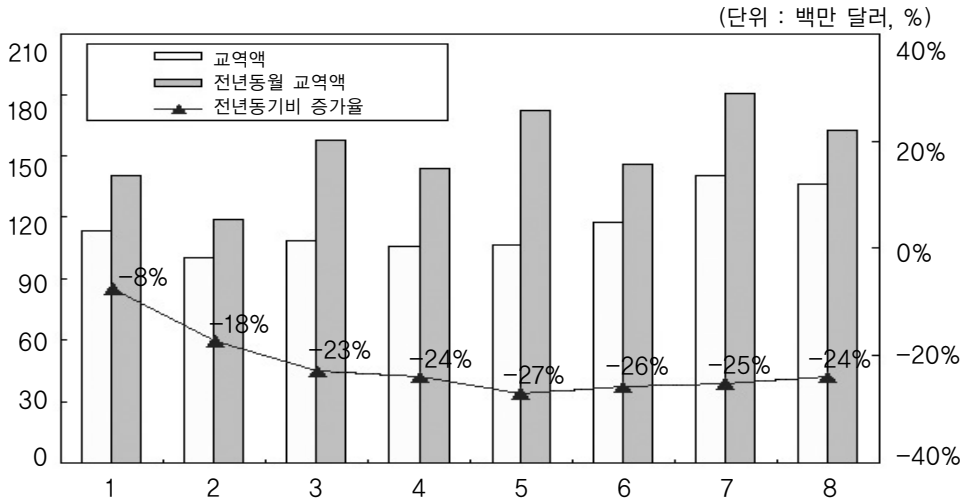
12) 이 기간 수출은 7.5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8.4% 감소했으나, 수입은 3.5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8.2% 증가. KOTRA, 북한경제 속보, 중국해관통계 참조.

불안한 남북 경협

2009년 1~8월 중 남북교역액은 9억 2,965만 달러로 전년 동기 12억 2,431만 달러 대비 24.1% 감소하였다. 최근 북한의 유화적 행동으로 경협 여건 개선 조짐이 있으나, 관광 재개 지연과 불안정한 남북관계로 2009년 교역은 지난해 수준을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남북경협 환경은 현정은 회장의 5개항 합의와 북한 조문단 방문 이후 북한의 육로 통행 제한 철회와 개성공단 임금 5% 인상 합의 등으로 다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나, 그러나 남북 간에는 정치·경제적인 걸림돌 상존으로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 북핵 문제를 비롯한 남북 관계의 불안정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금강산·개성 관광 재개가 지연되고 있고, 숙소 등 개성공단 활성화에 대한 걸림돌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2004년 베트남 탈북자 집단 입국 등으로 남북 관계가 경색되어 남북 경협이 마이너스 성장을 한 이후 최초로 교역액이 감소세로 전환한 것이다. 남북교역은 여전히 경제 외적 불안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 경제 외적 요인에 의한 경협 축소 현상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 2009년 1~8월중 남북교역 동향 〉



자료 : 통일부, 『월간남북교류협력동향』, 각호 참조.

북한 경제 전망

내부 여건과 한계

북한 경제는 중앙집권적 폐쇄형 계획경제 체제가 갖는 근본적인 문제점에 의해 빈곤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힘든 상황으로 분석된다.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노선에 의해 자력갱생에 의존하는 내수산업 중심의 경제 구조는 내부 자원의 고갈로 한계에 도달했으며, 이러한 경제 정책 노선은 대외 무역에서의 합리성 결여는 물론, 내부 자원 고갈로 인한 식량난과 에너지난 심화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강제적 노력 동원과 시장 통제의 강화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천리마 정신의 강조와 150일 전투 등 강제적 노력 동원과 시장 통제의 강화는 북한 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식량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노력 동원과 시장 통제의 강화는 주민들의 자구책 마련을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와 아사자 발생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2010년에도 체제 안정성을 중시하는 내부 통제의 보수적 경제 정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150일 전투를 종료하자마자, 또다시 100일 전투의 시작을 선포한 것은 당분간 이러한 보수적 통제 정책이 지속·강화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북핵 문제의 진전 여부에 의해 국제사회의 지원과 남북 경협 및 북중 교역의 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북한 경제의 자체 역량 미확보로 이러한 경제 외적 요인에 의해 커다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핵 문제의 순조로운 해결과 북미 관계의 점진적 진전은 북한 경제 발전 기반 마련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치·외교적 여건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 및 미 여기자 석방 이후 북미간 대화 기류가 진전되어 북핵 문제의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였다. 클린턴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면담(8.4)시 북한의 되돌릴 수 없는 핵 포기예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담은 오바마 행정부의 '포괄적 패키지' 구상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현정은

회장과 김정일 위원장의 면담(8.16)에서는 금강산 및 개성 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 5개항 합의가 도출되었다. 북한의 특사 조문단 방문 및 이명박 대통령 면담(8.22)에서는 남북간 대화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북한은 12.1 조치 전면 해제 조치로 적극적 대화 의지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북미간 대화 국면 조성으로 북미 관계의 전환 가능성이 있으나, 미국의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급반전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북미는 포괄적 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핵 폐기와 관계 정상화에 관한 구체적 논의에서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남북 관계는 북핵 협상 진전 여부에 따라 속도 조절되는 현 상황이 지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현 회장의 방북과 북한 조문단 방문, 이산가족 상봉 등으로 인한 화해 분위기의 고조로 관계가 급반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은 핵 협상의 진전 여부에 따라 보상 및 징계의 성격으로 지원 규모와 방법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 경협

남북 경협은 개성공단 정상화와 개성관광 재개, 금강산관광 재개 등이 단계적으로 제한적 수준에서 진전될 전망이다. 북한의 12.1 조치 해제와 무리한 임금 인상 요구의 철회 등 개성공단 정상화 노력으로 개성공단은 12.1 조치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의 통신 장비 제공과 개성공단 숙소 건설 등 지원이 수반되지 않는 한 개성공단의 확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중단된 개성관광은 북한의 12.1 조치 해제로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금강산관광은 비로봉 시범 관광 등이 제한된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당국간 입장 조절에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9